

광주·전남 중장년 60~70% “부모 부양, 가족·정부·사회가 책임져야”

광주·전남지역 중장년층은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중장년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자살로 집계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0~60대 중장년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로는 전북(70.4%), 전남(69.7%), 제주(64.5%), 광주(59.3%) 등의 순으로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같은 응답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전남(8.2%p), 전북(7.7%p), 제주(5.0%p) 순으로 증가한 반면, 광주(-10.5%p)는 감소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은 광주 15.6%, 전북 15.4%, 전남 15.1%, 제주 20.3%로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제주(-6.5%p), 전남(-4.8%p), 전북(-3.5%p), 광주(-3.1%p) 순으로 모두 감소했다. 2023년 중장년의 주말 주된 여가생활은 호남·제주지역 모두 동영상 콘텐츠 시청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제주(42.5%), 광주(38.4%), 전남(35.2%), 전북(33.1%) 등의 순이었다.

2019년과 대비해 동영상 콘텐츠 시청 비중은 광주(7.0%p)와 제주(3.5%p)는 증가했으나 전북(-2.9%p)과 전남(-1.6%p)은 감소했다.

20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중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제주(81.3%), 광주(81.0%), 전북(80.9%), 전남(78.3%) 순으로 높았다.

2019년과 비교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호남·제주지역 모두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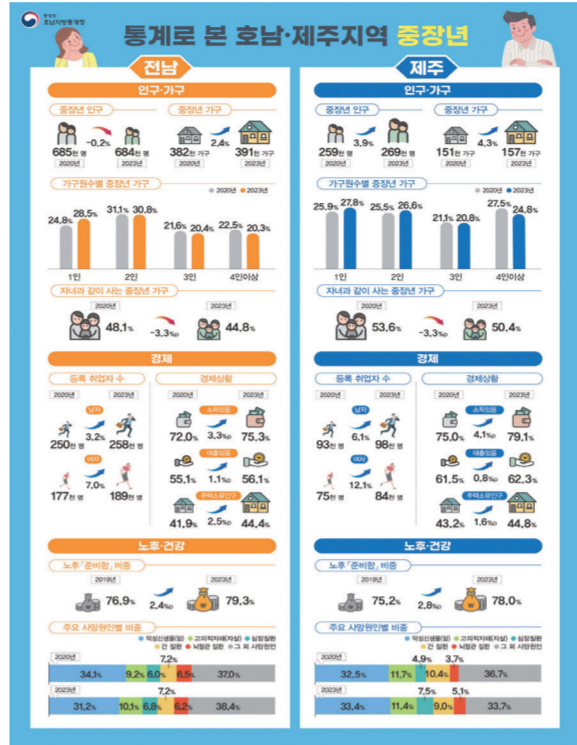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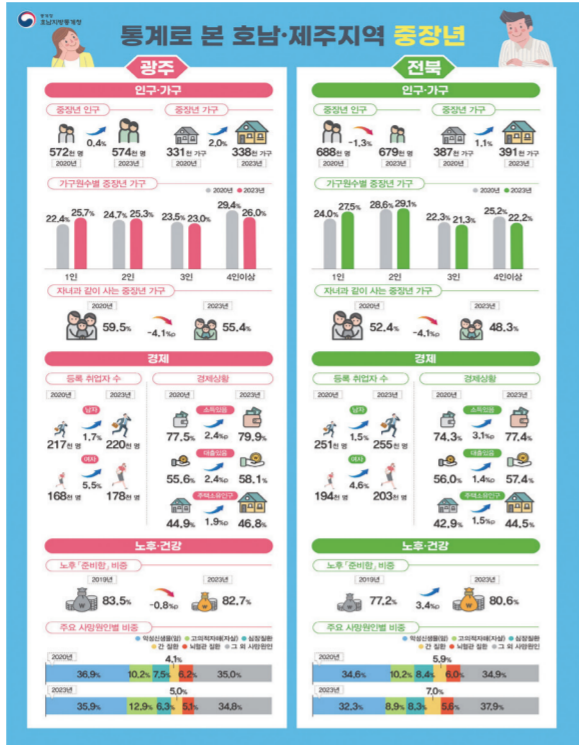
20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사망원인 비중 1위는 악성 신생물(암)이며, 광주(35.9%), 제주(33.4%), 전북(32.3%), 전남(31.2%) 순으로 높았다. 2위는 자살로 8.9%~12.9% 분포를 보였다.

2020년 대비 암의 비중은 전남(-3.0%p), 전북(-2.4%p), 광주(-1.0%p)는 감소했으나 제주(0.8%p)는 증가했다.

자살 비중은 광주(2.7%p)와 전남(0.9%p)은 증가했으나 전북(-1.3%p)과 제주(-0.3%p)는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발표

사망원인 1위 암 2위 자살... 주말 여가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



2023년 호남·제주지역에서 자녀와 같이 사는 중장년 가구 비중은 광주(55.4%), 제주(50.4%), 전북(48.3%), 전남(44.8%) 순으로 높았고, 광주는 전국(53.7%) 보다 높았다.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가구의 같이 사는 자녀의 연령은 10~19세가 제주(43.8%), 전남(43.1%), 전북(42.7%), 광주(41.7%)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등록취업자 수는 광주 39만8000명, 전북 45만8000명, 전남 44만7000명, 제주 18만2000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제주(8.8%), 전남(4.8%), 광주(3.3%), 전북(2.8%) 순으로 모두 증가했다.

20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의 소득 있음 비중은 광주(79.9%), 제주(79.1%), 전북(77.4%), 전남(75.3%) 순으로 높고, 광주는 전국(79.6%) 보다 높았다.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의 대출 있음 비중은 제주(62.3%), 광주(58.1%), 전북(57.4%), 전남(56.1%) 순으로 높고, 전남은 전국(57.0%) 보다 낮았다.

호남·제주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장년 인구 비중은 광주(46.8%), 제주(44.8%), 전북(44.5%), 전남(44.4%) 순으로 높고, 광주는 전국(44.9%) 보다 높았다.

2020년 대비 전남(2.5%p), 광주(1.9%p), 제주(1.6%p), 전북(1.5%p) 순으로 모두 증가했다. /신영길 기자



역대급 폭염에 농축산물 생육 비상 ‘히트 플레이션’ 우려도 확산

수박 한 통 2만6209원... 전년 대비 27.2% 상승 상추·시금치·배추 등 채소 가격도 대부분 품들 소돼지고기 이미 상승세... 닭고기도 오를 전망

7월 초까지 40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덮친 가운데 가뭄마저 이어지며 농축산물 생육에도 비상이 걸렸다. 역대 두번째로 짧은 장마에 이삼고온까지 겹칠 경우 먹거리 물가에 도 영향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수박 1개 소매가격(상품)은 2만6209원으로 1년 전(2만603원)보다 27.2% 올랐다. 전월(2만2611원)과 비교해 15.9% 상승했고, 평년(1만9806) 대비 32.3% 높은 수준이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채소류 가격 상승세도 심상찮다. 상추 100g 가격은 1190원으로 전월(920원)보다 29.4% 올랐고 시금치 가격도 1279원으로 전월(699원)보다 82.9% 상승했다.

갯잎 가격도 2554원으로 전월(2381원) 보다는 7.3% 올랐다. 배추는 1포기에 3740원으로 한 달 전(3196원)보다 17.0% 올랐으며 오이는 10개에 1만1781원으로 전월(1만854원)보다 8.5%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상추는 5.5%, 시금치는 7.2%, 갯잎은 23.4%, 오이는 25.6% 올랐다. 다만 배추는 같은 기간 11.7% 내렸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겹치며 비교적 안정적인 채소 품목까지 수급 문제가 번질 경우 농산물 가격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적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올해 장마가 이렇게 종료된 것도 폭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각각 지난달 26일, 이달 1일에 종료되면서 장마 기간이 15일, 13일에 그쳤다. 6월에 제주

도 장마가 끝난 것은 관측 사상 처음이며, 장마 기간도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수준이다.

이삼고온으로 농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쳐 채소값 등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히트 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축산물가도 불안정하다. 소고기 안심(1+등급) 가격은 100g에 1만4277원으로 전년(1만3600원)보다 4.9% 올랐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같은 기준 2806원으로 전년(2719원)보다 3.2% 높다.

최근 들어 고품행진을 이어가던 계란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계란(특란) 한판(30구) 가격은 평균 7186원으로 전년(6480원)보다 10.9% 높은 수준이다. 계란 가격은 석 달째 7000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지속될 경우 축산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여름철 향후 잦은 경우와 폭염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9일 기준 가축 재해보험 접수현황에 따르면 피해 개체는 돼지 1만8618두, 가금 36만857수다. 다만 이는 보험 신청 접수 기준 으로, 정부의 현장조사 후 확정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해 안정적인 닭고기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공개한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7월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2000원으로 전월(1892원) 대비 5.7% 올라 전년(1563원) 대비 27.9%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평년(1743원) 대비 로도 14.7%나 높다. /뉴스

전남도, 여름철 농작물 가뭄·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농업용수 확보·급수장비 지원·유관기관 협력강화 등 중점 추진

전남도는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빠른 장마 종료와 연일 이어지는 폭염, 높은 일조시간 등 이상기후로 여름철 농작물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가뭄(폭염) 대응 대책’을 세워 본격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올해 여름철 전남지역의 평균기온은 24.4℃로 평년보다 1.6℃ 높았고, 일조시간은 241시간으로 평년보다 61시간 늘어 작물 생육에 불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7일부터 폭염특보가 지속 발효 중이며, 가뭄의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전남 전체 저수율은 10일 현재 58.8%로 평년 수준(62.8%)과 유사한 수준이나, 주요 4대호(나주·담양·광주·장성)의 평균 저수율은 58.4%로 낮아 용수 확보와 장비

가뭄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10일부터 가뭄 해소 시 까지 ‘농작물 가뭄(폭염)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식량원에과장을 총괄로 한 4개 반 14명 규모의 가뭄대책반을 구성해 작물별 맞춤형 대응에 나섰다.

가뭄대책반은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 ▲농업용수 확보, 급수장비 지원 ▲기상청,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작물별 가뭄 관리 기술지도, 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전남도는 각 시군에 자체 상황실을 설치해 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재배포장 토양 수분관리, 급수장비 운용, 관정 개발 등을 통해 가뭄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전남 15개 금융·고용기관 청년취업 돕는다

오는 30일 광주시청 시민홀서 ‘합동 취업멘토링’ 행사

광주·전남지역 15개 금융·고용업무 공공기관들이 올해도 합동으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30일 광주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광주·전남 15개 공공기관 합동 취업멘토링’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광주·전남 지역에 본부를 둔 12개 금융·고용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다. 이처럼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처음 열린 8개 기관 합동 행사보다 참여기관이 크게 늘었다.

올해 합동 취업멘토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관별 1대1 멘토링이 제공되며, 참가자는 한 기관당 약 15분간 현재 근무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멘토링 외에도 취업특강, 청년 고용정책 안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25일 자정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